

산천단과 곰솔

예로부터 산천단은 한라산의 신령스러움이 내려오는 곳이라 하여 산신제를 지냈다. 산천단을 둘러싸고 있는 곰솔은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고 있다.



산천단동길 | 제주시 아라1동 370-13 ~ 제주시 아라1동 368-42(약 0.4km)

선돌목길 | 제주시 아라1동 1966-4 ~ 제주시 아라1동 산35(약 1km)

삼의영길 | 제주시 아라1동 442-1 ~ 제주시 아라1동 611(약 1.3km)

열녀길 | 제주시 아라1동 631 ~ 제주시 아라1동 735-8(약 0.8km)

곰방매길 | 제주시 아라1동 803-1 ~ 제주시 아라1동 296(약 1.7km)

제주대학로 | 제주시 아라1동 424-1 ~ 제주시 월평동 159(약 1.9km)

참단로 | 제주시 영평동 2099-3 ~ 제주시 아라1동 2238-47(약 3.8km)

능선길 | 제주시 아라2동 1021-5 ~ 제주시 아라2동 34-15(약 2.3km)

능산길 | 제주시 영평동 2450-9 ~ 제주시 영평동 2079(약 1.8km)

사송길 | 제주시 월평동 1873-4 ~ 제주시 영평동 2141-2(약 1.7km)

동샘길 | 제주시 영평동 2012-35 ~ 제주시 영평동 2090(약 0.8km)

포제길 | 제주시 영평동 2008-5 ~ 제주시 영평동 2332-1(약 0.7km)

산천단동길 | 산천단과 곰솔



산천단과 곰솔

산천단동길은 한라산신께 제사를 올리던 산천단의 동쪽마을을 의미하는 길이다. 제주 사람들은 한라산을 신선이 살고 있는 산으로 여길 만큼 신성시 여겨 한라산신이 제주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주목사는 매년 한라산에 올라 한해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올렸다. 하지만 한라산을 오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 산에 제물을 지고 올라가야하는 인부들은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약동 목사는 이런 폐단을 고치기 위해 산천단에 제단을 마련했다. 그 후로는 한라산에 오르는 대신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덕분에 무고한 희생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다. 산천단은 한라산의 영험한 기운이 내려오는 곳이라 믿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주목사는 산천단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산천단의 제사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중지되기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시 부활시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산천단 제사터 주변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령이 600년이 넘는 곰솔들이 자라고 있다. 이 곰솔들은 높이가 20m가 넘을 정도로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어 산천단의 신성함을 더하고 있다.

선돌목길 / 삼의영길 | 소산오름과 삼의양오름

선돌목길은 길목에 커다란 돌이 세워져 있다는 의미를 가진 선돌목이라는 지명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돌에는 한라산 혈맥이 이곳까지 내려와서 커다란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산천단이 한라산의 정기가 내려오는 곳으로 생각했던 옛날 사람들은 그 기운이 여기까지 이어졌으리라 여겼을 것이다. 선돌목길 인근에는 소산오름이 있다. 이 오름은 갑자기 솟아오른 오름이라는 의미로 솟은오름이라 부르던 것이 한자로 표기되면서 소산오름이 되었다고 한다. 이 오름의 유래에는 고려시대 중국 황제가 보낸 법사 호종단이 제주의 좋은 혈을 끊고 떠나자 그날 밤 갑자기 오름이 솟아나 한라산의 맥이 다하지 않았

음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소산오름 서쪽 기슭에는 별빛누리공원이 있어 밤하늘의 별을 관찰할 수 있다.

삼의양오름의 북쪽 들판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삼의영길**은 제주대사거리 북쪽 중앙로에서 시작해 발 사이로 셋길처럼 이어진다. 삼의양오름 또는 새미오름이라 불리는 오름은 산천단 남쪽에 있다. 삼의양오름은 산 정상에 샘이 있어 새미오름이라 불리다 한자로 표기하면서 삼의악(三義岳)으로 표기했다고 한다. 이 오름 주변으로는 아라동 역사문화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어 삼의악샘과 노루물, 칼다리폭포, 신령바위, 관음사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열녀길 / 곰방매길 | 열녀비와 곰방매

삼의영길과 이어지는 **열녀길**은 제주양씨 열녀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길이다. 제주양씨는 아라동에 살던 전형원의 아내였다. 양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큰 병에 걸리고 만다. 그녀는 지극 정성으로 간호했다. 남편 대신 자신이 병에 걸리기를 기도할 정도였다. 하지만 양씨의 노력에도 끝내 남편은 세상을 뜨고 말았다. 양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식음을 전폐하고 그대로 자리에 누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남편과 양씨를 합장 하고 열녀비를 세워 그녀의 정절을 기렸다고 한다. **열녀길** 동쪽 끝에서는 **곰방매길**이 이어진다. 곰방매는 제주에서 발갈이를 하거나 씨를 뿌릴 때 사용하던 농기구를 말하는데, 이 근방의 지형이 곰방매처럼 생겼다는데서 유래된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이 주변에 있던 샘물이 곰방매와 닮아 곰배물로 불렸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양씨 열녀비

제주대학로 |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대학로는 제주대사거리에서 제주대학교 입구로 이어지는 길이다. 제주대학교는 1952년에 용담에 있는 지금의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자리에 도립대학으로 출발했다. 1960년대에 이르러 국립대학이 되었고, 여러 학과들이 설치되면서 1980년대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이 시기에 현재 자리인 아라동으로 이전을 했다. 이후 제주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써왔다. 최근에는 제주교대와 통합으로 아라캠퍼스와 사라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아라동에

제주대학교병원이 마련되어 있어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현장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주대학로** 양 옆으로는 왕벚나무가 늘어서 있다. 봄이 되면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 가족과 연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첨단로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대학로의 동쪽에는 **첨단로**가 이어진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로 들어서는 길이라는 의미인 **첨단로**는 월평교앞 교차로에서 제주국제대학교까지 이어지며 516로와 만난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미래의 주요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IT분야나 생명과학 분야 등의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스트소프트 등 여러 기업들이 제주에 입주하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답답하고 복잡한 도심보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곳이 어떤 점에서는 최적의 근무환경이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이 지은 다양한 모양의 건물들을 감상하는 색다른 재미도 있다.

능선길 / 능산길 / 사송길 / 동샘길 | 마을 길의 이름들

아라동을 가로지르는 아연로에서 한라산방향으로 펼쳐진 **능선길**은 남쪽으로 제주대학교까지 이른다. 이 도로는 중간에 큰 등성이 졌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능선길** 옆

에는 나란히 이어지는 **능산길**이 있다. 이 길은 인근에 능산이물이 있다는데서 유래되었다. 능산이는 주변에 동산이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능산길**은 신성여자고등학교 앞을 지난다. **능산길** 동쪽에 있는 **사송길**은 물이 한곳으로 모여든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사송길**과 만나는 **동샘길**은 마을의 동쪽에 있어 동새미 또는 동샘이라고 불리는 샘물의 이름을 반영한 것이다. 동새미 주변은 숲이 우거지고 넓은 들판이 있어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일찍부터 마을이 생겼던 곳이라 한다.

포제길 | 포제동산

능산길과 사송길을 동시에 가로지나는 **포제길**은 마을제를 지내는 포제동산이 위치하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길 주변을 데왓동산으로도 부르는데 영평상동의 포제단이 있는 곳이다. 제주는 마을마다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무사안녕을 비는 유교식 포제를 지냈다.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당문화와는 또 다른 전통인 포제는 조선시대 들어 유교가 제주에 전파되면서 보편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제는 마을 사람 중에 초헌관, 아헌관, 중헌관을 비롯한 열 명 내외의 제관들을 뽑아 지낸다. 제관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과거에는 며칠 동안 합숙을 하는 곳도 있었다. 이때는 마을 입구에 금줄을 걸어 외부의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보통 일 년에 한 번 새해를 맞아 정월에 제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 포제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라졌지만, 최근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시 실시하는 곳이 많아졌다.